

# 김정은 시대의 미래과학도시 건설과 시각적 재현: 인상주의 도시풍경화의 유행\*

조민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 방문연구원

이 글은 김정은 시기 급격하게 변화된 도시경관과 이를 반영한 북한 현대미술의 새로운 면모를 고찰한 논문이다.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도시를 세계적 반열에 끌어올리려는 방안은 매우 구체적이며 이 시기 풍경화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2년 12월 12일 '광명 3호' 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이 발사된 후 과학의 위상이 높아지고 '미래과학자거리' 혹은 '은하레지던시'와 같이 '과학' 혹은 '우주'를 사용해 공간과 건물을 이름 짓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김정은은 '직관불장식 지도국' 산하의 '선경불장식 연구소'를 더욱 강화하고, 도시야경을 화려하게 조성할 것을 정책적으로 주문했다. 김정은 시대에 진행된 이러한 도시정책은 평양 시내의 경관을 현대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이 시기 제작된 도시풍경화에는 새롭게 조성된 도시경관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특히 화려한 인공조명으로 장식된 북한의 도시야경은 '빛'과 '색'을 다채롭게 사용하는 인상주의 풍경화가 제작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주제어 도시풍경화, 선경불장식연구소, 미래과학자거리, 인상주의, 야경

## I. 머리말

과학의 발전을 기대하고 미래도시를 상상하며 우주여행을 꿈꾸는 일은 북한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다.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집권했던 2012년 이후 북한의 선전화, 조선화, 그리고 유화에서는 '천문과학'과 '미래도시'를 주제로 한 그림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김정은 정권 초기 천문과학의 연구성과와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려는 정부 정책과 매우 관련이 깊다. 2012년 12월 12일 광명 3호 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이 발사된 후 과학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고, 김정은 시대의 발전상은 과학을 통한 경제 성장에 맞춰지

\* 이 논문은 2022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기 시작했다. 북한 정부는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평양에 새롭게 구획된 신시가지를 미래지향적인 테마로 조성하였다. 특히 김정은 시기 등장한 신도시의 주요 거리와 건물의 이름에는 ‘과학’, ‘미래’, ‘은하’와 같이 천문과학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들이 자주 사용되었다. 은하거리(2013), 위성거리(2014), 미래과학자거리(2015), 러명거리(2017), 위성과학자주택지(2014), 과학기술전당(2015) 등이 대표적이다. 미래도시를 표방해 만들어진 공간과 건물들은 평양의 새로운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었다.

더 나아가 김정은은 2007년 김정일 정권 때 설립된 ‘선경불장식연구소’를 활성화해 도시야경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은하레지던시처럼 우주를 연상하게 하는 건물이 들어선 거리들은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으로 현대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했다. 이에 발맞춰 문학과 미술, 그리고 연극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는 새롭게 변모된 북한 도시의 경관을 소재로 한 창작물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미술에서는 ‘은하 3호’와 신시가지의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선전화, 조선화, 그리고 유화가 다량으로 제작되었다.

김정은 시기에 시행된 과학기술 정책과 도시경관 변화와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정치학, 사회학, 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그동안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천문과학의 발전과 도시문화에 관한 최근 문학계의 연구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서동수는 김정은 시기 초기에 출판된 16편의 과학환상문학(SF 문학)을 정리하고, 이 시기 문학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근미래”에 도래할 유토피아적인 공간을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분석하였다(서동수, 2020). 김민선도 김정은 시대에 출판된 과학환상문학을 소개하면서 우주 테크놀로지에 관한 작가의 무한한 상상력에 주목하였다. 동시에 새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문제점과 도시인들의 불안과 혼란에 대해서도 조명하였다(김민선, 2020). 이외에도 새로운 도시 건설이 개인의 사적 영역을 넓히고 사회적 불평등과 개인의 욕망을 생산하는 역할하고 있다고 오창은은 설명하고 있다(오창은, 2020).

최근 학계와 언론에서는 김정은이 주력하고 있는 도시야경 조성사업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중에서도 홍민은 도시야경 조성을 김정은의 문화정치 일환으로 보고 새롭게 변모된 북한의 도시경관을 정치적인 맥락에서 분석하였다(홍민, 2017). 국내 신문 및 방송매체에서도 김정은 시기 조성된 북한 도시의 화려

한 야경에 주목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였다(이상현, 2016; 김현경, 2017; 최희선, 2022 등).

사실, 김정은 시기 과학의 성과와 도시경관의 변화는 선전화, 조선화, 유화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열린 박람회와 전시회에서 로켓, 우주, 그리고 신시가지 도시 풍경을 소재로 한 그림이 끊임없이 소개되었고 화풍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여 주었다. 하지만 북한 현대미술 작품은 사진이나 문학처럼 출판, 인터넷을 통한 재생산(reproduction)이 쉽지 않고 직접적인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김정은 시기의 변화된 도시경관을 미술에서 재현하는 양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김정은 시기 미래과학도시를 지향하며 급격하게 변하된 평양 도시경관과 이를 반영한 북한 현대미술의 새로운 면모를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북한 밖에서 소개되는 작품들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유토 피아적인 북한 도시를 보여 주는 그림에서는 미래과학자거리, 창전거리, 만수대거리와 같은 신시가지의 풍경을 기존의 사실주의 양식뿐만 아니라 인상주의 화풍으로도 보여 주고 있어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에 김정은 시기 북한에서 인상주의 화풍의 도시풍경화가 자주 제작되는 배경과 미학적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김정은 시기 미래과학도시의 건설과 선전화 제작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고 2012년 4월 김정은이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후 2012년 12월 12일 북한에서는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이 발사되었다(그림 1). 외부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 1만 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보유하는 데 성공하게 되어 전 세계가 위협에 빠지게 되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오히려 은하 3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집권하는 정권 교체기에 인민을 단결시킬 수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은하 3호의 발사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기대하는 북한 시민들에게 김정은 체제의 성격과 방향을 제시하는



출처: 『로동신문』 2012년 12월 13일.

**그림 1** 은하 3호 발사 장면



출처: 『조선예술』 2013년 3월.

**그림 2** 박철현,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 선전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과학의 발전과 우주 시대에 대한 대비는 북한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2012년부터 제작된 선전화에서는 당시의 우주 열풍을 말해 주듯이 ‘은하 3호 로켓’이 빈번하게 등장하였고, 과학의 발전을 부르짖는 주제의 그림이 많이 제작되었다.

2013년 1월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는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라는 제목의 선전화 전람회가 개최되었고,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에 대한 김정은의 신년사를 시각화한 선전화 60여 점이 출품되었다.<sup>1</sup> 이 중에서도 전람회의 포스터를 장식한 박철현의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그림 2). 이 선전화에서는 우렁차게 구호를 외치는 과학자와 우주로 발사되기 직전 연기를 내뿜고 있는 은

<sup>1</sup> 이 선전화 전람회에 출품된 작품에 대해 한철민이 쓴 관평 「선전화 작품들마다 맥박치는 백두산 대국의 혁명적 기상」에서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새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우리 군대와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평양국제문화회관에 전시된 선전화의 제작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였다(한철민, 2013: 55-56).

하 3호, 그리고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그려져 있다. 2014년 3월 『조선예술』에서는 평양국제문화회관 선전화 전람회 출품작에 대한 한철민의 「관평」과 함께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에 대한 특집기사가 실었다. 김영화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전투적 화폭; 선전화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에 대하여」라는 기사에서 박철현의 선전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김영화, 2014). 김영화는 선전화를 제작할 때 ‘시대정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는데, 박철민의 선전화는 김정은 시대의 시대정신을 “직관적이고 호소성 있게” 잘 반영했다고 평가했다.<sup>2</sup> 김영화는 ‘시대정신’을 부단히 강조했는데 박철현의 선전화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김정은 시대의 시대정신임을 말하고 있다.

2012년 12월 은하 3호가 발사되고 3개월 후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가 전람회 포스터에 사용되고 거리 곳곳에 걸려 선전용으로 사용되었다. 김인석이 그린 조선화 「소나기」에는 선전화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가 버스정류장의 배경으로 그려져 있으며(그림 17), 이러한 도시풍경화를 통해 김정은 집권 1년차에 진행된 ‘은하 3호’의 발사가 북한 시각문화 형성에 미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한성규, 김영호, 김학림이 제작한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 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일어나가자!」에서도 은하 3호의 발사 장면이 돌진하는 군인들의 모습과 함께 그려져 있다(그림 3). 이외에도 김정은 정권 초기에 제작된 다수의 선전화에서는 ‘은하 3호’가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메타포로 사용되었으며, 선전화를 통해 ‘천문과학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고 시대정신이다’라는 김정은의 과학기술정치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주력했다.

선전화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 초기에 제작된 연극, 문학작품에서도 ‘은하 3

<sup>2</sup> 김영화는 “장면 설정과 구성을 간단명료하게 하면서도 시대정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화면의 직관성과 호소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는 것은 선전화가 말 그대로 선전을 목적으로, 시기성과 기동성을 중요한 요구로 하여 창작 보급되며 인세를 전제로 하는 것과 관련된다”라고 말하며, 선전화 제작에 쓰일 컴퓨터 글자체와 위치 등 제작 방식까지 자세하게 설명했다(김영화, 2014: 56-57). 2000년대 이후에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보급으로 ‘컴퓨터선전화’가 등장하고 유통되어 선전화 제작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였다(김민수 외, 2021: 169-173)





출처: 『조선예술』 2012년 3월.

**그림 3** 한성규·김영호·김학림,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다가자」, 선전화, 2012



출처: 『조선예술』 2013년 6월.

**그림 4** 임영철, 「민족의 금지」, 유화, 2013

호'는 빠짐없이 등장했다. 2013년 태양절을 경축하는 은하수 음악회에서는 '은하 3호'와 앞으로 발사될 '은하 9호' 두 대의 로켓이 무대를 장식하는 데 쓰였다(『조선예술』 2013년 6월). 특히 문학에서는 김정은 시기 과학의 성과가 창작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으며, 우주여행, 인공위성, 뇌과학 등 한국 사회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룬 과학환상소설이 발표되었다. 리금철, 한성호의 『〈P-300〉은 날아다(2016)』, 신승구의 『〈광명성-3호〉에서 날아온 전파(2016)』, 백현숙과 연시의 『한 위성과학자의 추억: 너는 그때 무엇을 하였느냐?』 등에서는 천문과학의 서사가 주인공 과학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문학작품들은 새로운 과학의 시대를 맞이하는 희망 동시에 과학발전이 가져올 문제들도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다(서동수, 2020; 김민선, 2020). 김정은 시기의 쓰여진 과학환상문학을 통해 '우주', '로켓', '인공위성' 등을 연구하는 천문과학이 국가발전의 지향점이자 인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동력으로 작동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6월 개최된 「만수대창작사 창작자들의 기량전시회」에 소개된 임명철의 「민족의 금지」에서는 〈광명성-3호〉의 발사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며 기뻐하는 시민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그림 4). 김용혁은 2013년 『조선예술』 6월호에서 임명철의 「민족의 금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유화 민족의 긍지는 당보에 실린 우리의 주체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 발사 소식을 보며 저저마다 기쁨과 환희에 넘쳐있는 인물들의 개성적인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다. 인공지구위성 발사성공소식에 접하여 놀라움과 걱정을 누르지 못하는 로인과 남녀청년들, 그런가 하면 나 어린 학생들도 당보앞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생활 세부들은 매 인물들의 성격형상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하나의 력사적인 사변을 진실하고 깊이 있게 펼쳐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 깊이 새겨주고 있다(김용혁, 2013: 23).

은하 3호의 발사 이후 김정은은 과학정치의 이데올로기를 새롭게 조성되는 평양의 도시계획에 투영하기 시작했다. 은하 3호 발사를 기념하는 은하과학자거리(2013), 위성거리(2014)가 연이어 조성되었고, 평천구역 미래동의 미래과학자거리(2015), 려명거리(2017) 등의 신시가지를 우주를 모티브로 하여 건설되었다. 다시 말해 북한 정부는 김정은 시기 새롭게 등장한 거리 이름에 전격적으로 미래도시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신도시 건설과 함께 고층 건물을 짓는 건설산업도 붐이 일었는데, 이때 지어진 고층 건물의 이름에도 미래도시를 연상하게 하는 이미지가 투영되었다. 위성 모양의 53층 은하레지던지, 원자 모양의 미래기술전당 등은 평양의 도시경관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김정은은 2013년 12월 8일 「당의 주체적 건축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건설에서 대번영기를 열어나가자!」라는 서한문에서 "록색건축"과 함께 "세계건축발전의 추세에 맞는 건설"을 부단히 강조하였다(이선경, 2015: 412-413).

김남식과 윤성철이 제작한 선전화 「세계적 수준의 훌륭한 건축물들을!」에서는 북한의 도시계획이 평양과 같은 대도시를 세계적 반열에 들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그림 5). 또한 2014년 5월 『조선예술』에 소개된 박철현의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건설에서 대 번영기를 열어나가자!」에서는 평양에 새롭게 지어진 초고층 건물들과 미래지향적인 신도시의 경관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전화는 변화된 북한의 도시경관과 미술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김정은 시기 정부가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

하지만 선전화는 문자 그대로 "인민들이 당의 정책과 방침을 제때 알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펼쳐 나가도록" 하기 위한 '선전'이 목적이며, 정치구호에 담



출처: 『조선예술』 2014년 5월.

그림 5 김남식·윤성철, 「세계적 수준의 훌륭한 건축물들!」, 선전화, 2013

긴 내용을 “직관성”과 “호소성” 있게 시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3</sup> 따라서 여전히 강한 정치적 프레임 안에서 작동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선전화를 통해 도시 구성원이자 창작의 주체인 작가의 시선이나 시민들의 일상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반해 조선화와 유화에서는 변화된 북한 도시의 경관뿐만 아니라 도시인의 감성과 작가의 시선까지 복합적으로 보여 주고 있어 다양한 담론이 오갈 수 있다. 다음의 논의에서는 북한의 변화된 도시경관이 유화, 조선화에서는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 III. 새로운 도시풍경화의 출현과 인상주의 화풍의 유행

김정은 정부는 평양이 미래지향적이고 국제적 수준의 현대성을 갖게 하기 위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치밀하게 기획하였고, 대동강 수변경관과 도시 야경(불장식) 조성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홍민, 2022: 341). 그중에서도 평양시 야경을 다채롭게 하기 위해 김정일 정권 때 신설된 ‘직관불장식지도국’ 산하의 ‘선경

<sup>3</sup> 선전화의 목적과 제작 방식에 관한 글은 『조선예술』에 끊임없이 등장한다. 앞서 언급한 한철민의 글에서 “선전화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기동성 있게 창작하여 인민들이 당의 정책과 방침을 제때에 알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펼쳐 나가도록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중요한 사안에 대중을 불러 일으키는 동원자적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김정일의 말을 인용했다(한철민, 2013: 56). 또한 2013년 3월 『조선예술』에서 최성근은 “선전화는 설정한 문제가 사람들을 행동으로 이끄는 계기로 되게 하고 실천적 방도를 제기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김정일의 발언을 소개했다(최성근, 2013: 30).





출처: 『연합뉴스』 2020년 7월 21일.

그림 6 미래과학자거리

불장식연구소’를 더욱 활성화했고,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주최로 열리는 중앙과학기술축전에 ‘불장식’ 및 ‘조명기구’ 분과를 신설하는 등 도시 야경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다(김현경, 2017). ‘선경불장식연구소’는 2007년 6월 27일 설립되었고, 2017년 6월 27일 창립 10주년 기념보고회가 인민문화궁에서 열렸다(로동신문 17/06/28). 기념보고회에 관한 2017년 6월 28일 『로동신문』 기사에 따르면, 김정은 시기 선경불장식연구소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마식령스키장,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등 기념비적인 창조물들에 대한 불장식을 인민의 민족적 정서와 현대적 미감에 맞게 훌륭히 완성하였으며 만리마속도 창조의 고향인 려명거리의 야경을 황홀하게 장식”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로동신문 17/06/28). 2017년 3월 16일 『로동신문』은 김정은이 려명거리에서 현지답사를 하는 모습과 완공을 앞둔 려명거리 풍경을 보여 주었다. 김정은은 의도적으로 해 뜨기 전 새벽에 이 지역을 사찰했고, 『로동신문』은 화려한 조명이 켜진 려명거리의 70층과 55층 아파트를 김정은의 모습과 함께 1면에 대서특필했다(로동신문 17/03/16). 『로동신문』은 이날 현장답사에서 김정은이 “려명거리 완공에서 불장식(야경) 공정에 커다란 중요성과 의의를 부여하며 불장식을 잘할 것에 대한 강령적 과업을 주었다.”라고 전했다.

려명거리보다 2년 전인 2015년 11월 3일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는 현재 평양의 중요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했다. 대동강변을 끼고 펼쳐지는 미래과학자거리의 스카이라인은 국내외 언론보도 및 영상매체를 통해서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풍경이다(그림 6). 2015년 11월 4일 『로동신문』 1면에서는 미래과학자거리



출처: 東營市美術館.

그림 7 박광일, 「미래과학자거리」, 유화, 100×70cm, 2017

준공식 장면뿐만 아니라, 은하레지던시를 비롯해 새롭게 들어선 고층 건물과 건물 내부의 현대식 인테리어를 자세히 보여 주었다(로동신문 15/11/04). 이 보도에서도 역시 대동강변을 따라 펼쳐진 고층빌딩과 화려한 조명으로 반짝이는 도시야경을 보여 주고 있다. 이후 북한 안팎에서 미래과학자거리는 현대화된 평양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2018년 박광일이 제작한 유화 「미래과학자거리」에서는 2013년에서 2015년에 걸쳐 평천지구에 지어진 미래과학자거리와 대동강변의 야경을 강한 인상주의 화풍으로 보여 주고 있다(그림 7). 어둠 속에서 강렬한 조명을 발산하는 고층 건물이 대동강을 따라 줄지어 늘어서 있고, 2015년에 건설된 200미터 높이의 은하레지던시를 중심으로 화면의 시점이 모이면서 현대화된 도시 풍경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건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려한 불빛은 강물 위에 반사되어 낭만적인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 그림에서는 ‘외광효과’를 강조하여 도시의 감성적인 모습을 부각하고 물 위에 반사된 풍경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인상주의 회



출처: 『조선예술』 2013년 2월.

**그림 8** 오영길, 「눈 내리는 만수대거리의 야경」, 유화, 2013

화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유람선은 마치 그림을 보는 관객이 대동강변을 유람하는 것 같은 간접 체험의 효과를 가져다준다. 박광일은 앞서 소개한 『로동신문』의 사진에서 보이는 색감보다 훨씬 더 주관적이고 과장된 색과 빛의 효과를 사용하여 새로운 도시공간에 대한 작가의 감상과 시선을 적극적으로 투영했다. 박광일은 1996년 평양미술대학에 입학해 조선화를 전공했고, 「묘향산암석」으로 국가미술전람회에서 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 하지만 졸업 후에 유화로 전향했고 다양한 인상주의 작품을 제작했다.

박광일의 그림처럼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기존의 사실주의 회화 창작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조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도시풍경화가 자주 등장한다. 특히 평양의 변화된 도시경관을 그린 풍경화에서는 평양 신시가지의 야경이 중요한 소재로 자리매김했다. 2013년도 2월 『조선예술』에 소개된 오영길의 유화 「눈 내리는 만수대거리의 야경」에서도 고층 아파트 건물이 빼곡하게 들어선 평양 중구역 만수대거리의 눈 내리는 풍경을 화려한 조명과 함께 낭만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조선예술』 2013년 2월)(그림 8). 유화뿐만 아니라 조선화에서도 화려한 인공 조명으로 물든 도시이미지를 보여 주는 그림이 제작되었다. 2013년 6월 『조선예술』에서는 「태양절경축송화미술전람회」에 출품된 박진영의 조선화 「따사로운

사랑의 불빛」을 소개했다(『조선예술』 2013년 6월). 눈 덮인 북한 시내의 풍경이 리광의 조선화 「불빛바다, 웃음바다」에서는 전경에 테마파크를 클로즈업하면서 원경에 류경호텔까지 펼쳐지는 평양시의 스카이라인을 화려한 도시 조명을 이용해 보여 주고 있다(그림 9).

세 작품은 화면 전체에 인상주의 회화의 외광효과처럼 도시 조명을 과장해서 표현했고, 이러한 표현은 도시 전체를 현실의 공간이 아닌 환상의 공간처럼 보이게 한다. 김정은 정권기에 도시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불장식(야경)” 자체가 매우 화려하기도 하지만 유희와 조선화에서는 실제 야경보다 더 강하게 ‘빛’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현방식이 김정은 시기 북한미술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데는

북한식 사회주의 미술창작에서 “예술적 환상”과 “예술적 과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최근의 분위기와 맥을 같이한다. 심혁철은 「회화형상에서 예술적허구와 과장수법의 유기적결합」이라는 글에서 “예술적 과장은 표면적으로 작품창작에서 예술적 허구의 활용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부여해 준다.”라고 했다(심혁철, 2014: 64). 「눈내리는 만수대거리의 야경」에서 만수대 거리의 구조는 지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주요 수단은 만수대 아파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다. 더 나아가 늦은 저녁 내리는 눈은 도시 조명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낭만적이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처럼 신시가지를 배경으로 하는 도시풍경화에서는 어둠을 압도하는 도시 조명과 눈 내리는 풍경을 통해 환상적이고 허구적인 공간을 재구성한다. 다시 말해, 북한의 도시계획에서 ‘불장식(야경)’을 강조하는 도시



출처: 『조선예술』 2013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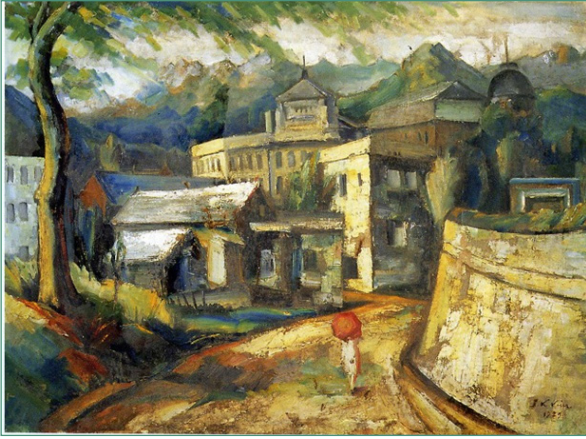
**그림 9** 리광, 「불빛바다, 웃음바다」, 조선화, 2013. 그림 속 도시공간이 마치 가상의 공간 혹은 상상의 공간처럼 보인다.



정책과 ‘외광효과’를 강조하는 인상주의식의 창작방식은 북한식 “예술적 과장”을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절묘한 미학적 교섭점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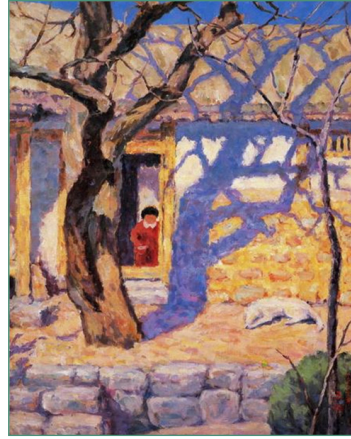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미술이 민족적 특색을 찾는 과정 중에 “밝고 선명하며 간결한 미감”이 미술창작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해 왔다(홍지석, 2013: 138-142). 기존의 북한의 사실주의 회화, 특히 유화 창작에서 “색”은 “빛”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 인상주의 회화가 자주 제작되는 현상은 유화 창작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색”과 “빛” 중에 “빛”의 위상이 이전보다 높아진 상황을 말해 주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 미술비평에서도 ‘빛’에 대한 해석과 논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2014년 『조선예술』에 소개된 강철의 “색채의 물리적 특성”이라는 기사에서는 “(미술에서) 한마디로 색은 빛이다. 빛과 색은 물리적으로 같은 개념으로 빛 속에 색이 있고 또 빛이 있어 색을 식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강철, 2014: 58). 이러한 주장은 1938년 인상주의 화가 오지호가 『2인화집』에서 주장한 “회화는 빛의 예술이다”, “光의 搖動! 색의 歡喜! 자연에 대한 감격-여기서 나오는 것이 회화다”라는 초기 인상주의 화가들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김주경·오지호, 1938). 앞서 소개한 인상주의 화풍의 풍경화에도 확인할 수 있듯이 ‘빛’을 통한 풍경의 재현이 이제 김정은 시기의 풍경화 제작에서 중요한 수단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빛”을 강조하는 인상주의 회화는 김정은 시기 이전에도 비주류 영역에서 꾸준히 제작됐으며, 사실 북한의 역사보다 더 긴 전통을 갖고 있다. 북한에서의 인상주의 화풍은 일본에서 유학하고 월북해 평양미술학교를 건립한 김주경(1902~1981)과 같은 월북 작가들에 의해 1940년대부터 적극적으로 소개되고 제작되었다(신수경, 2013; 홍지석, 2016; 김희대, 1993)(그림 10). 남북한에서 인상주의 미술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김주경과 오지호(1905~1982)는 도쿄미술학교에서 유화를 전공하고, 졸업 후 개성 송도고보에서 미술 과목을 가르쳤으며 북한 인상주의 미술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그림 11). 오지호는 남한으로 내려와 활동하고 김주경은 북한에 남아 북한의 국장을 도안하고 미술창작을 이어 나갔다(신수경, 2022). 하지만 1960년대 주체 미술의 등장과 사회주의 사실주의 양식에 기반한 조선화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인상주의 미술은 논쟁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sup>4</sup> 1960년대 주체미술과 조선화가 주류 화풍이 되면서 인상주의 회화가 ‘형식주의’로 내몰리



출처: 국립현대미술관.

**그림 10** 김주경, 「북악산을 배경으로 한 풍경」, 유화, 65.5×180cm, 1929



출처: 국립현대미술관.

**그림 11** 오지호, 「남향집」, 유화, 80.5×65cm, 1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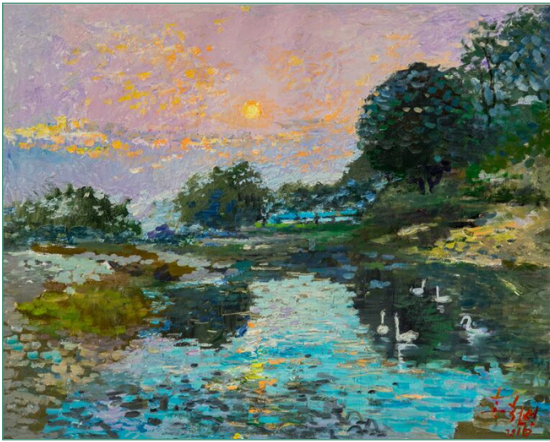
고, 김주경 이후에 한상익(1917~1997)과 같은 인상주의 화가가 그 명맥을 유지했지만, 한상익조차도 지역미술가의 자리로 강등되었다(김문경, 2021; 이구열, 2001).

김일성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전통 “몰골화” 기법을 발전시킨 조선화가 우세하였으나, 김정일은 “우리식의 유화”도 함께 제작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정일 시기에는 주류 조선화에서 자주 사용하던 몰골화 기법을 인상주의 미술에 적용한 한상익과 같은 인상주의 화가의 지위가 복권되었고, 1991년 조선미술박물관이나 1992년 평양 국제문화회관에서 한상익 개인전을 열 수 있게 되었다(김문경, 2021: 108-112). 1990년대부터 북한의 인상주의 화가들은 부단히 활동 영역을 넓혀 갔다. 홍지석은 2007년 김정일이 만수대 창작사와 평양미술대학을 방문했을 때 유화 작품에 특별한 관심을 표했으며, 김정일 집권 말기에 오히려 조선화가 위기에 직면했고 유화가 중심 장르로 급부상했다고 분석했다(홍지석, 2020: 341-345).

사실 이 문제는 최근 들어 북한의 접경 국가인 중국 미술계에 소개되는 북한의 유화 작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도 많은 연관성이 있다. 중국의 전시

<sup>4</sup> 1960년대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논쟁은 수묵화를 전통미술의 영역에서 강등시키고 채색화를 재해석한 북한식 전통미술인 ‘조선화’라는 장르를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와 맞물려 진행되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홍지석(2016: 155-175) 참조.





출처: 『搜狐』 2020년 5월 29일.

그림 12 홍천성, 「파란 연못」, 유화 77×60cm, 2016.



출처: Singapore Central Art Gallery.

그림 13 정수철, 「물에 비친 가을 풍경」, 119×190cm, 유화, 2020

회와 박람회에서는 사실주의 유화 작품뿐만 아니라 인상주의 작품의 수량도 날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조선예술』에서도 인상주의 미술이 부단히 소개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안팎에서 북한식 인상주의 미술이 재유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민주, 2021: 157-158).<sup>5</sup> 예를 들어, 홍천성(1950~2017)은 평양미술대학 유화 학부 출신의 작가로 북한 내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여러 번 그의 인상주의 작품에 대한 개인전이 열렸고 인상주의 미술의 ‘북한화’를 시도하는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搜狐, 2020). 홍천성은 1973년 평양미술대학에서 유화를 그리기 시작해 최근까지 「파란 연못」과 「고향의 강」 등의 자연과 농촌을 소재로 한 작품을 그렸다(그림 12). 2020년 중국 쓰촨성 전시 「피다, 진달래!」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인상주의 화풍의 그림이 소개되었다. 특히 정수철의 유화 「물 위에 비친 가을 풍경」(그림 13)

<sup>5</sup> 북한미술이 중국에 자주 소개되는 현상은 글로벌 사회주의 미술사의 연구 범주 내에서는 중국 내 북한미술에 대한 수요 증가와 사회주의 국가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동시에 정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 타개하려는 방안으로 중국의 일반 관중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인상주의 미술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모색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출처: 『조선예술』 2013년 6월.

그림 14 채영일, 「마식령 스키장 건설장에서」, 유화, 2013

에서는 금빛 단풍이 호수에 비치는 풍경을 붉고 노란 단풍잎에 강한 햇살을 투과해서 화려하게 그려 냈다.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북한의 기관지 『조선예술』에는 정통 인상주의 화풍의 미술을 자주 소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작품은 2014년 『조선예술』 1월호에 실린 채영일의 유화 「마식령스키장 건설장에서」이다(그림 14). 이 그림에서는 여름 피약벌에서 스키장을 건설하는 노동 현장을 강한 마띠에르가 느껴지는 전형적인 인상주의 화법으로 보여 주고 있다. 2013년 12월 31일 김정은 시대 초기를 대표하는 건설인 마식령 스키장이 완공되기 전후로 마식령 스키장을 주제로 한 유화와 선전화가 많이 제작되었다(그림 15).<sup>6</sup> 김정은은 2013년 6

<sup>6</sup> 마식령 스키장을 소재로 한 이 시기의 선전화에서도 기존의 선전화와 다른 서사와 회화적 표현을 보여 주고 있다. 김영빈의 「마식령지구에 로동당만세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자!」, 박철현 「〈마식령



출처: 『조선예술』 2013년 6월.

그림 15 김영빈, 「마식령지구에 로동당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자!」, 선전화, 2013

월 4일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호소문을 발표하였고, “일당백 공격 속도”로 단숨에 마식령 스키장 문화공간의 건설할 것을 주문하였다(김성수, 2014). 김정은은 마식령 스키장의 건설을 통해 북한 시민의 문화수준을 끌어올리고 선진국 못지않은 스포츠 강국으로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채영일의 그림에서는 수많은 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과 공사장의 풍경은 구체적인 사물의 구체적 묘사가 아닌 노동자의 안전모, 공사장에 걸린 깃발, 하얀색 셔츠와 검은색의 노동복을 붉은색, 흰색, 검은색의 점 혹은 짧은 붓 터치를 이용해 반복적이고

간략하게 처리했다. 공사장 곳곳에 걸려있는 붉은 깃발은 그림의 통일감과 울동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깃발에 적힌 문구의 내용은 알아볼 수 없고 하얀 붓 터치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2014년 리천일의 선전화 「사회주의 건설이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에 등장하는 붉은 깃발에 적힌 “마식령속도”로 추정할 수 있다(그림 16). 이처럼 노동 현장이라는 정치적 서사를 전달해야 하는 유화 작품에서도 이제 사실적인 재현보다는 현장의 열기나 노동자의 분주한 움직임을 ‘빛’과 ‘색’ 통해서 전달하는 인상주의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속도)로 온 나라에 대비약, 대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키자」 등에서는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통한 건설과 스포츠 강국으로의 전환을 선전하고 있다. 김영빈의 선전화에서는 현재 남한의 청년들이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건설노동자와 스키복을 입고 스키를 들고 있는 남녀 청년이 해맑게 웃으면서 전투적인 미래 건설보다는 현재의 풍요를 향상화하고 있다. 군인이나 노동자를 주인공을 하고 전투와 투쟁을 기조로 하는 기존의 선전화와는 매우 다른 형태로 스포츠나 여가로 스키를 즐기는 인민의 풍요로운 일상을 희망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조선예술』 2013년 6월.

**그림 16** 리천일, 「사회주의 건설이 모든 전선에 서 새로운 전성기를!」, 선전화, 2013

1973년에 그려진 정영만의 「강선의 노을」에서 인물을 빼고 ‘노을’과 ‘강선제철소’의 풍경만으로 노동 현장의 정치적 서사를 재현했던 시도처럼(류인호·안경희, 2000; 박계리, 2011; Douglas Gabriel, 2021), 「마식령스키장 건설장에서」에서는 노동 현장을 그리는 데 사실적 재현에 치중하기보다는 노동 현장을 보고 느낀 작가의 인상 혹은 감상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이때 인상주의 미술의 양식과 기법은 작가의 정서를 미술에 투영하는 데 매우 좋은 표현 수단이 되었다. ‘미래과학자거리’나 ‘마식령스키장’이라는 공간이 경직된 북한 사회의 해방구이자 가까운 미래에

많은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이상의 공간으로 북한 사회에서 인식된 것처럼, 채영일은 그림을 감상하는 인민과의 소통을 중시했고 뜨거운 노동 현장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적극적으로 투영했다.

앞서 소개된 풍경화에서는 변화된 북한의 도시 외관을 보여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김인석의 「소나기」에서는 새롭게 조성된 도시 안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이 중심이 된다(광주비엔날레, 2018). 2018년 광주비엔날레 북한전에서 인기를 끌었던 김인석의 조선화 「소나기」에서는 갑자기 내린 소나기와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시민들의 다양한 표정이 그림의 소재가 되었다(그림 17). 작가는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해 가방을 쓰고 달리는 여성, 아이가 비에 젖을까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자(母子), 우산을 함께 쓰고 마주 보고 있는 연인들, 비가 와서 마냥 신난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표정을 짓고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비가 내려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지극히 평범한 복장을 하고 차분한 미소를 띠며 비 내리는 풍경을 감상하고 있는 젊은 여성





출처: North Kroean Art: Pradoxical Realism.

그림 17 김인석, 「소나기」, 조선화, 217×433cm, 2018

의 모습은 매우 서정적이다. 고인 빗물에 반사된 네온사인과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시의 조명들은 갑자기 쏟아지는 빗줄기와 어우러져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몽환적인 모습으로 바꿔 놓은 듯하다.

다양한 시민들의 모습 뒤로 버스정류장에는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라는 구호가 적힌 선전화가 걸려 있다. 그림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성적인 분위기로 선전화조차도 정치구호로 보이기보다 조금도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이미지로 비친다. 이 선전화는 바로 2013년 6월 『조선예술』에서 소개한 박철현의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 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이다(그림 18). 이러한 북한 시민의 일상을 소재로 한 서정적인 도시 풍경화는 북한 밖에서도 인기를 끌었으며(조민주, 2021), 2013년 북경의 뤼른 미술관에 전시된 이성옥의 「출근길」은 중국 관객의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다(南方周末 13/02/28). 아침햇살을 맞으며 환한 미소를 짓고 출근하는 여성들과 신문을 읽으며 걸어가는 일상의 모습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노선을 걷는 중국에서 관객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도시인의 일상과 감성이 미술의 주제로 강하게 작동하는 이러한 그림들은 다른 어떤 장르의 그림보다 시민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미



출처: 『조선예술』 2013년 5월.

**그림 18** 박철현,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선전화, 2013

감을 보여 주고 있으며, 지도자의 업적이나 정치적 서사를 중심에 두는 기존의 그림들과 매우 차별화된다. 시민들의 일상을 감성적으로 보여 주는 이러한 도시 풍경화는 최근 북한 도시를 소재로 한 미술 제작에서 새로운 미감이 형성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 IV. 맺음말

김정은 시기 북한의 도시계획과 인상주의 도시풍경화의 창작은 북한식 “예술적 과장”을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새로운 도시 미감 형성을 위한 교섭점을 절묘하게 찾아가고 있다. 한동안 사실주의 미술에 가려져 비주류 영역에서 제작되었던 인상주의 미술이 다시 등장하고 북한의 기관지인 『조선예술』에서 자주 소개되는 현상은 북한 미술창작에서 ‘빛’의 역할이 점점 더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상주의 풍경화에서는 현대화된 도시를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과 감성, 그리고 변화된 도시를 살아가는 평양 시민들의 일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미술창작에서 작가의 자유가 대부분 보장되는 것에 비한다면 북한 작가의 창작의 자유는 여전히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김정은 시기 도시풍경화 제작에서 도시인의 일상이나



도시를 바라보는 작가의 감성이 강하게 투영되는 현상은 북한 내부의 변화와 분명한 관계가 있어 보인다. 북한이 건립되고 사실주의 미술에 가려 빛을 못 보고 북한 사회 내에서 어렵게 전통을 이어 온 인상주의 미술이 김정은 시기 다시 재해석되고 유통되는 현상은 북한 시각문화에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인민과 정부의 소통 방식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코드다. 이는 김정일 시대와 달리 김정은 시기 정부와 인민이 미술로 소통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요구와 문화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 일상의 영역에서 미술의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노동신문에 실린 사진이나 선전화를 읽어내는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것이다. 특히 풍경화는 상상, 감성, 욕망, 찰나 혹은 영원 등의 다양한 추상적 개념이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다르게 읽힐 수 있다. 임영철의 유화 「민족의 긍지」에서 보여 주듯이 은하-3호 발사에 관한 신문을 함께 읽는 시민의 시선과 이러한 일상을 포착하는 작가의 시선은 노동신문이 담지 못하는 또 다른 북한의 문화적 서사를 보여 주고 있다. 북한에서 창작되는 수많은 미술작품도 자본주의 사회의 현대미술처럼 불확정성(indeterminacy)을 내포하고 있으며,<sup>7</sup> 미술에서의 불확정성은 또 다른 확정된 공간으로의 확장이자 대안으로 다가올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불확정성은 다양한 관객에 의한 다양한 해석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인상주의 도시풍경화가 북한에서 새로운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미학적 시도와 논쟁에 주목해 본다면 북한미술 연구 뿐만 아니라 북한 도시문화 연구에서도 다양한 담론이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3년 2월 8일 | 심사일: 2023년 3월 4일 |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31일

## 참고문헌

<sup>7</sup> W. T. Michell은 Landscape And Power의 두 번째 edition의 Preface에서는 landscape가 가진 “indeterminacy”의 특성 강조했고, 공간과 장소의 개념과 풍경의 영역을 비교분석하면서 landscape의 정치적·문화적 특수성을 설명했다(Michell, 2002).

## 북한 문헌

- 『로동신문』, 평양: 로동신문사.
- 『조선예술』,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강철. 2014. “색채의 물리적 특성”. 『조선예술』(2월), 58.
- 김영화. 2014. “시대정신을 반영한 전투적 화폭: 선전화 「과학기술의 뿔마를 타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자!」에 대하여.” 『조선예술』 3월, 56-57.
- 김용혁. 2013. 『조선예술』 6월.
- 리재현. 1999. 『조선력대미술가편람』.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심혁철. 2014. “회화형상에서 예술적 허구와 과장 수법의 유기적 결합.” 『조선예술』 9월.
- 최성근. 2013. “선전화 화면결형상의 기본요구.” 『조선예술』 3월, 30-31.
- 한철민. 2013. “선전화 작품들 마다에 맥박치는 백두산대국의 혁명적 기상.” 『조선예술』 3월, 56-57.

## 단행본

- 광주비엔날레. 2018. 『상상된 경계들: 2018 광주비엔날레』. 광주: 광주비엔날레, 안그래픽스.
- 김주경·오지호. 1938. 『2인화집』. 한성도서.
- 보너, 니콜라스, 사이먼 콕커렐 외 저. 김지연 역. 2019. 『Printed in North Korea: 북한의 예술』. A9Press.
- 서동수. 2018. 『북한 과학환상문학과 유토피아』. 소명출판사.
- 류인호·안경희 편. 2000. 『정영만과 그의 창작』.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이구열. 2001. 『북한 미술 50년: 작품으로 만나는 주체미술』. 돌베개.
- 홍민. 2017.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김정은 정권 5년 통치전략과 정책 실태)』. 통일연구원.
- Muhn, B. G. 2018. *North Korean Art: Pradoxical Realism*. 서울셀렉션.

## 논문

- 김문경. 2021. “북한의 유화 인식 변화와 한상익(1917-1997)의 형식 문제.” 『미술사학보』 57, 91-117.
- 김민선. 2020. “테크놀로지와 ‘멋진 신세계?’ 남북문학예술연구회 저. 『감각의 갱신. 확장하는 인민: 김정은 시대와 북한 문학 예술의 지향』, 100-157. 살림터.

- 김민수·이정은·이슬·김미혜. 2021. “창작과 표현으로 본 북한 선전화: 1950년대 이후 북한 선전화 양식의 형성과 변화.” 『아시아리뷰』 11권 1호, 169-173.
- 김성수. 2014. “‘단숨에’ ‘마식령속도’로 건설한 ‘사회주의 문명국’: 김정은 체제의 북한문학 담론 비판.” 『상허학보』 41, 545-557.
- 김희대. 1993. “한국근대 서양화단의 인상주의적 화풍의 계보.” 『미술사연구』 제7호, 47-60.
- 박계리. 2011. “백두산: 만들어진 전통과 표상.” 『미술사학보』 36, 43-74.
- 서동수. 2020.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환상문학의 특이점: 가상의 현실화. 현실의 가상화.” 『현대소설연구』 77, 307-157.
- 신수경. 2013. “김주경의 해방 이전 민족미술론 연구.” 『인물미술사학』 제9호, 45-84.
- \_\_\_\_\_. 2022. “해방 직후 북한의 국가 상징물 제정 과정과 매체 활용 양상: 국기와 국장을 중심으로.” 『美術史學報』 59, 127-156.
- 오창은. 2020. “김정은 시대 북한 소설에 나타난 평양 공간 재현 양상 연구: 사회주의 평등과 사적 욕망의 갈등.” 『한민족문화연구』 71, 77-114.
- 이선경. 2015. “김정은 시대 문학에 나타난 국가적 이상: 이상적 영토로서의 조선 형상화를 중심으로.” 『신진연구논문집』, 375-436. 통일부.
- 조민주. 2021. “21세기 중국에서 바라본 북한미술: 북한미술의 전시 및 유통의 확대와 새로운 사회주의 미술 취향의 형성.” 『인문과학연구』 33, 147-173.
- 홍민. 2022. “기획특집: 아시아 도시의 도전과 미래(3):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의 도시: 변화와 지속.” 『아시아브리프』 2권 48호.
- 홍지석. 2013. “북한미술의 근대성: 사회주의리얼리즘. 선전화. 그리고 사진.” 『현대미술사학』 34, 138-142.
- \_\_\_\_\_. 2016. “이상적 자연주의. 생성의 회화론: 김주경(金周經 1902-1981)의 초기 미술 비평.” 『인물미술사학』 제12호, 99-138.
- \_\_\_\_\_. 2016. “고유색과 자연석: 1960년대 북한 조선화단의 ‘색채’ 논쟁.” 『현대미술사연구』 39, 155-175.
- \_\_\_\_\_. 2020. “감각의 갱신과 화단의 세대교체.” 남북문학예술연구회 저. 『감각의 갱신. 확장하는 인민: 김정은 시대와 북한 문학 예술의 지향』, 334-349. 살림터.
- Gabriel, Douglas. 2021. “Smoke on the Water: Jong Yong Man’s Evning Glow over Kangson and the Grounds for Landscape Painting in North Korea.” *Art Journal* 80(2), 84-100.
- Michell, W. T. 2002. “Preface to the Second Edition of Landscape and Power.” W. T. Michell, ed. *Landscape And Power*, 7-12. London.

## 신문기사

김현경. 2017. “김정은의 각별한 ‘야경 사랑.’” 『중앙일보』(3월 27일).

이상현. 2016. “北 매체. 지방도시 야경 소개. “대북제재 의식한 선전용.” 『연합뉴스』(7월 18일).

최희선. 2022. “[시선의 확장] 축제 분위기 고조시키는 불장식 도안. 북한 언제부터 불붙었나?” 『news 1』(12월 17일).

李邑蘭. 2013. “這是一支原始股 被忽略的朝鮮當代藝術.” 『南方周末』(2月 28日).

包貴韜. 2020. “線上展覽 | 印象主義譜系之光: 當代朝鮮油畫大家洪天星作品回顧展.” 『搜狐』(5月 29日).

## Abstract

## Construction of Future Science City in the Kim Jong-un Era and Its Mapping in Art: The Emergence of New Urban Landscape Paintings in Impressionist Style

Min Ju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lan for North Korea's urban planning during the Kim Jong-un time is very future oriented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emergencies of the new taste of cityscape painting of this period. With the launch of the Unha-3 rocket that was equipped with the Kwangmyong-3 satellite,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preparation for the space age became an important driving force in North Korean society. This political ideology of science was reflected in the city planning and urban culture of Pyongyang, the Galaxy Street commemorating the launch of the Unha-3 (2013), Satellite Street (2014), Future Scientists Street (2015) as well as skyscrapers such as the 53-story Eunha Residency were built one after another. The changed urban landscape appeared in various genres of painting, from propaganda painting to oil painting and Joseonhwa painting. In landscape painting depicting the changed cityscape of Pyongyang, the night view of Pyongyang's new town, colored with artificial lighting in various colors, has become an important subject matter. In particular, Kim Jong-un ordered a policy to splendidly plan the night view of the city by establishing a new 'Intuitive Lighting Decoration Guidance Bureau' and creating a 'Seonkyong Lighting Decoration Research Institute' under the 'Guidance Bureau'. This became an important driving force for the production of Impressionist landscape paintings that use 'light' and 'color' as important pictorial

methods, which eventually diversified from the existing realism painting style. The interpretation of ‘artificial lighting’ seen in the Park Kwang-il’s oil painting ‘Future Scientists Street’ produced in 2018 goes beyond showing the newly emerged urban landscape, and actively reflects the artist’s imagination and expectation for the city’s night landscape. While implying each artist’s perspective and artistic taste in the early days of the Kim Jong-un regime, the changed urban landscape and citizens’ sentiments were actively reflected on many landscape paintings in the impressionist style.

**Keywords** | Kim Jong-un, Seonkyeong Lighting Decoration Research Institute, Impressionism, cityscape painting, Pyeongyang urban planning